



[뉴스] 비트코인 1,9만 달러 붕괴 전망도 암울 02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40.93 (-10.48)	코스닥	798.69 (-3.46)
금리 (미국 3년)	3.745 (+0.017)	환율 (원-달러)	1287.3 (+1.70) (17일)

‘脫탄소 시계’ 빨라진다... 기업들 생존 넘어 도약의 기회

넷제로 대전환의 시대

1 가야만 하는 길

기후위기로 촉발된 재해 재난이 끊이지 않으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넷제로(탄소순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넷제로를 선언, 올해를 넷제로를 위한 원년으로 삼았다. 넷제로 대전환의 시대에 식품·유통업계의 근본적인 변화와 노력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기후위기 저지와 넷제로는 일개 국가와 기업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채택하고 UN 권고에 따라 2020년부터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발전하고 이행하게 됐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동참 중이다.

지난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



SK텔레콤이 1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선보인 넷-제로(Net-zero) 시대의 그린 ICT 기술 전시 부스의 모습 /SK텔레콤

세계 주요국 환경보호 한마음 정부 탄소중립 통한 미래약속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기업들, 비용 부담에도 동참

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됐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시행령을 통해 2030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정했다. 산업계 등에서 과도한 목표라고 반발이 있었으나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110대 국정과제안에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내걸었다.

윤 정부의 넷제로 목표 등은 앞선 문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용물은 다르다. 기존 NDC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였으나 윤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노후원전의 계속 운전(수명연장) 신청 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이 허용되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은 3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반면 재생에너지에 관해서는 주민수용성 등을 감안해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내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시행한다.

산업계의 탄소중립 유도·의무화를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과 기후 대응 기금을 활용한 지원, 기술중심이 아닌 기후위기 등에 주안점을 둔 R&D 방향 전환, 한국전력의 독점 전력 판매 구조 개방 등이 논의되고 있다.

“지금은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격변의 순간입니다. 기후 리더십을 갖고 적극 나선다면 생존을 넘어 블루오션과도 같은 시장을 발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달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 참여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말이다. 글로벌 기업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넷제로 시대로 향하는 지름을 설명한 말이다.

넷제로를 향한 기업의 입장은 복잡하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제4회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 '넷제로 시대, 미래식품' 푸드테크산업 혁신 모색

'넷제로(Net Zero)' 대전환 시대를 맞아 식량 부족, 기후 변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식품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과 미래식품 발굴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메트로미디어는 6월 23일 서울 을지로 페르타워 페럼홀에서 '2022 제4회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 2022)'를 개최합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는 '넷제로 시대 미래식품'이란 주제로 미래식품, 푸드테크 산업의 혁신 방안을 현실로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저니푸드의 창업자 겸 대표인 리아나 린이 기조강연을 맡습니다. 저니푸드는 식품개발 단계부터 효율적인 식품유통까지 관리하는 AI 기반 식품 관리 플랫폼 서비스기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자료에 근거해 더 나은 영양소 조합의 식품을 개발하고 나아가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지능적 서비스를 연구합니다.

첫 세션 '넷제로 시대 지속가능한 식품 트렌드'에는 김소형 스탠포드대학교 환경공학과 푸드리서치 디렉터가 강연자로 나섭니다. 김소형 박사는 미래 식품 및 레스토랑과 관련한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넷제로 시대를 위한 미래식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김태석 풀무원기술원 실장의 '식물성지향 미래식품' 강연에 이어 민명준 리하베스트 창업자 겸 대표의 '푸드 업사이클링', 심재민 디보션푸드 중앙연구소 소장의 '콩고기 대체육' 등 발표가 이어집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그동안의 경험과 전략들을 공유할 예정이니 메트로경제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푸드테크 기업 잇저스트와 SPC그룹이 출시한 식물성 대체 단백질 '저스트 에그' ▲리하베스트의 맥주 부산물을 원료로 한 '리너지셰이크'와 '리너지바' ▲풀무원의 '무라벨 생수'와 '두부바' ▲오트밀을 주원료로 한 롯데제과의 '마시는 오트밀' ▲매일유업의 '어메이징 오트'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 ◆ 주제 : 넷제로 시대 미래식품
- ◆ 일시 : 2021년 6월23일(목) 14:00~17:00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르타워 페럼홀(3F)
- ◆ 주최 : 메트로미디어(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 주관 : 에이커스
- ◆ 등록 참가비 : 일반참가자 110,000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30명 제한) *참가확인 메일 회신 필수 및 현장 학생증 제시
- ◆ 문의 : 에이커스(070-8884-6000)
- ※ 위 일정 및 후원, 강연자 등은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럽 출장길서 치열한 글로벌 정세 확인한 JY

기술·인재·유연한 조직 앞세워 초격차 재시동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처럼 입을 열었다. 긴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더 치열해진 글로벌 정세를 확인하고 다시 혁신을 본격화하려는 모습이다. '이미 있는 M&A'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오전 김포공항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로 귀국했다. 지난 7일 출국한지 12일만이다. 해외 출장은 6개월 만, 유럽행은 18개월여만이다. 아직도 매주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출장을 단행해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이 부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미래 핵심 먹거리인 전장 사업을 먼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헝가리 삼성SDI 공장을 둘러보고 독일 BMW를 찾아 전기차 플랫폼과 배터리 공급 관련 협력을 논의



유럽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스1

한 것. 자회사인 하만 카돈도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업계의 급변하는 상황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단순히 '전동화' 움직임 뿐만 아니라 배터리 개발과 양산 확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등 더 복잡해지고 치열해진

전장 시장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BMW는 삼성SDI 등에서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팩을 자체 제조하고 있지만, 조만간 배터리 셀도 자체 생산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행보도 이어갔다. 네덜란드를 방문해 마

르크 워터 총리와 협력을 논의하고, ASML을 찾아 피터 베닝크 CEO에 EUV 장비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전했다. 이어서 벨기에 첨단 연구소인 imec을 방문해 미래 먹거리도 다시 확인했다.

이 부회장은 ASML 방문 일정을 '가장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EUV 장비 수급이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25년 인텔에 앞서 TSMC가 차세대 EUV인 하이NA EUV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 부회장도 하이NA 도입 시기를 저울질 했을 가능성이 있다. imec 방문을 통해서도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8면에 계속>

/김재용기자 juk@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국힘 "민주당, 北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 방해 의도 엿보여"
▲박지원 "尹대통령, 미래·경제로 가셨으면... 사정은 간단히" /사진 뉴스1

▲韓총리 "프랑스서 부산엑스포 경쟁PT... 유치 의지 알릴 것"
▲국조실, 청년정책 직접 만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개 모집



▲유시민 "언론의 조국 보도는 '침 뱉는 행위'... 지금도 계속" /사진 뉴스1
▲대통령실, 文 청와대 '정보공개소송' 현황 점검